

군산 신시도에 국제 마리나항 들어선다

국가지원 거점형 항만 지정...내년 상반기 기반 공사

요트 정박장·교육체험관·숙박·상업시설 등 조성

새만금 신시도에 거점형 마리나 항이 들어선다. 전북도는 내년부터 군산 고군산지역의 해상레포츠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마리나항 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2013년 3월 해양수산부로부터 국가지원 대상 거점형 국제 마리나 항만으로 지정된 고군산지역 마리나항은 새만금 신시도에 들어선다. 도는 현재 진행 중인 실시설계가 끝나는

내년 상반기에 일단 국비 17억원으로 기반 시설공사를 벌일 계획이다. 거점형 '고군산 마리나항'은 18만8000㎡의 부지에 요트와 보트 300여척을 계류할 수 있는 육·해상 추정장과 교육체험관·문화 복지시설 등이 있는 클럽하우스가 건립되고 인근에는 숙박 및 상업시설도 조성된다. 요트와 보트의 정박 등을 위한 방파제(440m)와 호안(390m) 등도 정부 지원 등을 받아 건설된다.

전북도는 신시도 마리나항이 해양레저 스포츠의 요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단계별 육성방안과 다양한 수익모델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해나갈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고군산을 국제 마리나 항만으로 개발하면 수도권과 남해안을 연결하는 중간 가고 역할과 함께 생산유발액 1130여억원, 취업 1000여명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전남 소식



현대삼호중공업 경영진과 관계자들이 협력사를 방문해 간담회를 하고 동반성장의 지를 다졌다.

현대삼호중공업 동반성장 현장 간담회

협력사 방문 민원 청취

현대삼호중공업(대표이사 사장 하경진) 경영진들이 협력회사를 잇달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동반성장 의지를 다졌다.

15일 현대삼호중공업에 따르면 경영지원부문장인 송기생 전무를 비롯한 자재담당 수석부장 등 관계자 일행이 지난 11일 대불산단에 소재한 협력회사 6곳을 찾아 현장 민원 청취와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대상 기업은 현대삼호중공업 인근 대불산단에 위치한 대아산업(주)과 디에이치엘씨(주), ㈜선우, ㈜그라스, 성민기업, (유)해신산업 등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현대삼호중공업은 협력회사들과 기술인력 수급, 기술자 양성, 안전교육 확대, 사내번호사 등을 통한 법률서비스 지원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그동안 현대삼호중공업은 공정거래 질서확립을 위한 4대 가이드라인 준수, 조선업종 표준 하도급 계약서 도입, 납

품대금 전액 현금지급, 81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 펀드조성, 해외 박람회 동반 참가 등을 실시하는 등 협력회사의 동반성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 실천해 왔다.

또 1차와 2차 협력회사의 구분을 없앤 동반성장 펀드 조성, 협력회사의 기술개발과 기술 인력 지원 등에도 적극 나섰으며, '산업혁신 3.0운동'에 참여해 2차 협력회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도 했다.

현대삼호중공업 송기생 전무는 "조선산업이 어려울수록 모기업과 1차 협력회사, 1차 협력회사와 2차 협력회사가 동반성장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면서 "동반성장 문화 확산과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다른 지역이 부러워할만한 산업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현대삼호중공업은 협력사와 동반성장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6월 동반성장위원회가 선정하는 최우수 기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영남=대성수기자 dss@

순창군 교육진흥 총력

2020년까지 100억 투자

맞춤형 평생 교육도시 목표

순창군이 오는 2020년까지 100억원을 투자해 교육진흥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번에 수립된 '교육진흥 2020 중·장기 계획'은 군민 누구나 언제나 배울 수 있는 평생교육도시 조성을 목표로 엘리트 교육은 물론 다문화가족, 여성, 노인, 농민 등 계층별 맞춤형 교육을 총망라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육천인재속 사관학교반' 운영을 비롯해 ▲결혼이민자 직업훈련교육 ▲여성사회교육 ▲어르신 배움교실운영 ▲농민을 위한 농업·농촌혁신대학 운영 ▲저소득층 및 다문화 다자녀 가족 자녀학습비 지원 사업 등 총 19개 사업이다.

내년부터 운영하게 될 '육천인재속 사관학교 지방생 양성반'은 순창군에서 운영하는 육천인재속에 걸맞게 청소년들에게 바른 국가관을 심어줘 나라에 봉사하는 인재육성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됐다.

사관반은 고 2 ~ 3학년 재학생 중 경찰대, 육·해·공군 사관학교, 간호사관학교에 지원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또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교육은 결혼이민자들을 간호조무사 과정, 문화해설가로 양성시키는 직업교육과 결혼이민자들이 도내 대학에 입학할 경우 학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순창만의 독특한 사업이다.

이 밖에도 교육진흥을 위한 중·장기 계획에는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혁신대학 운영과 농촌관광 체험반 등 농업·농촌 혁신대학운영, 농산물 가공기능반 등을 운영해 농어민교육을 통한 지역발전의 내재적 성장동력도 키워나가기에 된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신나는 난타...영원한 청춘

남원시 노인복지관(관장 김봉술) 평생교육프로그램 수강생들이 지난 12일 복지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2회 청춘제'에 난타를 공연하고 있다. 수강생들은 밸리댄스·건강체조·색소폰·영어회화 등 노인복지관에서 1년간 배운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남원시 노인복지관(관장 김봉술) 평생교육프로그램 수강생들이 지난 12일 복지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2회 청춘제'에 난타를 공연하고 있다. 수강생들은 밸리댄스·건강체조·색소폰·영어회화 등 노인복지관에서 1년간 배운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남원=정규섭기자 jgs@

120년 방치 동학군 유해, 황토현 전적지 안장 무산

문화재청 심의 최종 부결

2017년 기념공원 안치 추진

일본군에게 효수된 뒤 120년 가까이 방치됐던 동학농민군 지도자의 유골을 정읍 황토현 전적지에 안장하려던 계획이 결국 무산됐다.

정읍시는 "동학농민군 지도자의 유골을 황토현 전적지에 안장하기로 하고 문화재청에 현상 변경을 신청했으나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부결됐다"고 15일 밝혔다.

문화재청은 지난달부터 3차례에 걸쳐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했으나 '2017년까지 황토현에 조성될 예정인 기념공원의 희생자 묘역에 모시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확정했다.

유골을 모시려던 황토현은 국가 지정 사적지여서 인위적인 시설물 등을 설치하려면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유골 안장을 추진했던 정읍시와 전주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등은 조만간 만나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지만 현재로서는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유골

은 묘역이 조성될 때까지 최소 3년 이상 전주 역사박물관 지하 수장고에 그대로 보관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하지만 유골이 또다시 장기간 방치될 상황에 부닥치면서 반인도주의적 처사라는 비판이 다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 제자리찾기의 해운 스님과 정읍시 공무원노조 등 시민·사회단체는 그동안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유골을 서둘러 안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검찰 고발까지 검토해왔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js@

무안경찰, 주민과 함께 하는 '공감 치안' 호응

무안경찰서(서장 박우현)는 지난 11~12일 이틀간 목포대와 초당대에서 주민과 함께하는 주민 알권리 총족을 위한 2014년 치안성과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보고회는 주민과 함께하는 공감 치안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그동안 무안경찰에서 추진한 치안성과와 내년 치안정책 방향과 목표에 대해 보고했다.

보고회 장소도 지역주민과 대학교, 경찰서가 상호 관심을 갖고 지역사회 발전 방안을 함께 고민하자는 취지에서 관내 대학교로 선정했다.

무안경찰은 주민의 알권리 총족과 함께하는 공감 치안행정을 펼치기 위해 읍·면·이장협의회 월례회의 등 '찾아가는 치안 설명회'를 정례화할 계획이다.

박우현 서장은 "무안지역 치안환경 변화와 범죄사건 수준 등 다양한 치안지표를 통해 무안지역 치안의 현주소를 진단, 주민들에게 보고했다"며 "전남도청 남악시대 10년에 즈음해 다시 찾고 싶은 살기 좋은 무안을 만드는데 주민 모두가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무안=김민준기자 jun@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매·교환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감정가이하

- 담양대덕면 산 236132㎡(71430) 공사가 9천 사할 기도원 적합 1억5천
- 금남로 가구점 대지 416㎡(126)공사가 12억7천 은행 8억 매도 11억
- 금남로 4가 대로변 대지 317㎡(97)건평 1235㎡(363) 투자양호 14억
- 충청남도 태안군 해수욕장 펜션 최적합지 1984㎡(600) 감정7억7400 은행5억8천 감정가로 매도나 교환원함.
- 롯데백화점 인근 시설좋은 모텔 대지 390㎡(118) 건평 1375㎡(416) 객실 33 은행 10억8천 교환가능 14억7천
- 장성군 삼계면 주산리 주거지 6908㎡(2090) 대출 2억 매도 천만원
- 여수시 삼산면 초도리 땅 794㎡(240) 건물 100㎡(30) 별장, 펜션, 민박집 적합 교환도 가능 3500만원
- 금매 광천동 터미널 인근 6층 건물 대지 661㎡(200)건평 3055㎡(924) 4층 133평은 공실 대출15억 전세 9억 월 500 회사 사옥 등 적합 25억

투자 매도 교환

- 금매 광산구 하산동 그린벨트 대지 건축물 대장 있음 95㎡(287)대출 8천 매도 5백
- 금매 무안군 양면면 자연녹지 22238㎡(667) 대지 555㎡(168)대출 8천 매도 5백
- 쌍촌동 신축건물 대지 215㎡(65)건평 418㎡(126) 안집과 원룸 5개 투룸 4개 은행 1억5천 매도 6억3천
- 조선대 앞 대로변 동명동 5층 건물 대지318㎡(96) 건평 736㎡(228) 상가와 안집, 원룸 18개 보증금 1억에 월 500천 수익 8억7천
- 합평군 해보면 문장사거리 코너 준주거 334㎡대출 5천 매도 1억6천
- 전원주택지 남구 압촌동 대지 575㎡(174) 매도 1억8천
- 상가와 공동주택 적합 산수시장 준주거 284㎡(87) 3억7천
- 상가와 공동주택 적합 광산구 신촌동 284㎡(86) 2억5천
- 나주시 금천면 오강리 7934㎡(2400) 남양유업인근 도로 좋은 공장, 창고 등 다양도 11억 3천
- 화정역 5분 거리 대지 645㎡(195)별장용 단독주택용 적합 3억천

문의 222-4994, 010-2632-5659
쌍촌동 (구) 등기소 자리, 가도 생활주택 전시장

남도공인중개사

<혁신도시 주변 매물>

전원주택

- ▶ 나주시 금천면 석전리 대지 및 전 2,305㎡, 주택 2동 각종 유실수 화초 식재됨, 전방 양호, 매4억
- ▶ 나주시 용산동 대지 및 전 5,100㎡ 황토 주택 3동 교통편리, 매7억
- ▶ 나주시 세지면 오봉리 대지 및 전 1,733㎡ 슬라브주택 교통편리, 매9천만

농지 / 임야

- ▶ 나주시 금천면 오강리 전 및 대지 6,600㎡ 주택 2차선 도로변 및 4차선 국도점, 매10억
- ▶ 나주시 금천면 원곡리 담 6,605㎡ 도로양호, 전으로 사용가능, 매1억 4천만
- ▶ 나주시 광산면 동촌리 전 25,120㎡ 2차선 도로변, 관리지역, 투자유망 매5억
- ▶ 나주시 세지면 교신리 전(지목상 임야) 20,495㎡ 영농조건 양호, 임대수익 양호, 투자유망, 매3억 7천만
- ▶ 나주시 관정동 매립지 전 7,547㎡, 2차선 도로변, 매3억 2천만
- ▶ 나주시 금천면 월산리 담 2,975㎡, 2차선 도로변, 매1억 3천만
- ▶ 나주시 세지면 오봉리 담 13,530㎡, 면 소재지, 매3억
- ▶ 나주시 남평읍 광촌리 임야 1,384,140㎡(대지, 농지 포함)소나무 양호, 수려함, 선산 적합, 매30억
- ▶ 영암군 금정면 안로리 대봉감나무 과수원, 고소득 가능, 매4억
- ▶ 영암군 덕진면 금강리 전 6,600㎡ 4차선 도로변, 계획 관리지역, 매2억 9천만
- ▶ 영암군 신북면 모산리 전 70,835㎡4차선 국도변, 전체 계획 관리지역, 남향, 투자유망, 매17억

나주시 금천면 영산로 5740
☎ 010-9510-1150, 061) 333-1150

투자만점(지산동)

전원주택, 사찰부지 등 최적!
동일조건에서 더이상 싼땅은 없습니다.

- 지역 : 주거 및 보전복지지역(도로점)
- 지목 : 전
- 면적 : 3,716㎡
- 매가 : 3.3㎡ 37만

신축 상가 임대

금호 2지구 먹자골목 중심 상권
주차빌딩 1층 상가

- 면적 : 117㎡ ~ 175㎡ (1층), 258㎡(2층)
- 용도 : 모든 업종 가능
- 준공 : 2014. 12. 31
- 기타 : 면적, 임대가 다양, 권리금 없음

최고의 전원주택지

서구 세하동 주거지역, 주변 환경 및 조망권 최고,
더 이상 좋은 전원주택지는 없습니다.

- 지역 : 1종주거지역(2필지)
- 지목 : 전
- 면적 : ①600㎡ ②780㎡
- 매가 : 3.3㎡ 당 140만

세하동 토지

세하동 서광주역 뒤 주거지역 및 그린벨트, 도로 점,
전원주택지 및 투자가치에 좋습니다.

- 지역 : 주거지역 및 자연녹지
- 지목 : 대지 및 임야(현황:전)
- 면적 : 7,439㎡ (주거1,112㎡, 녹지 6,327㎡)
- 매가 : 3.3㎡ 당 38만

지번문의 사절

영운(구.대창)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송 창 석
011-642-7777

1%대 초저금리시대 수익형부동산에 뭉치돈이 몰린다!

시세차익 대신 임대수익 노려

5~7억원대 여웃돈을
가진 50~60대
은퇴자들은 **안정적인
임대수익률**을
찾아서 투자한다!

광주첨단지구 유동인구 많은 CGV영화관 옆 3층건물

근린생활시설 상가 17억

010-2804-0632